

社說

이젠 교과서와 TV에서 벗어날 때 — 동용문을 들어서는 새내기들에게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 입구의 이름은 동용문이다. 입구에서 건물에 있다고 보면, 용이 고상한 모습에 나타 오르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 산세 때문에 용이 보이는 신인상이라서 그런가, 동용문을 처음 들어서는 신입생들은 비상의 꿈을 꾸기 쉽다. 그러나 그 꿈은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대학 밖,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서 시달리고 가정에서 시달렸다. 교과와 회화 리를 알아야 하는 일은 신인상 대학 진학을 마치 최고선으로 생각하게 한다. 꿈과 높은 신인상의 주름살이 보이는 거점에서 고차 출결 수 있는 여가는 텔레비전으로 대체된다. 젊은이들의 문화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은, 사교와 감정이 나 감자 뿐만 아니라 직관도 부족하다고들 한다.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에 흥미로운 대결구조와 언론 플레이는 알고 있지만 제3세계의 억압과 착취의 구조에 관해서는 무지하다. 강동건의 '마지막 승부'와 문경은의 농구는 알면서도 한국 체육계의 부패한 재계 문제와 그 구조는 관심 밖이다. 스미르나의 '유리 공'은 재미있게 보며 서부 영화의 환상을 가까스로라도 '배영 전파'로 대체되는 민중영화 운동은 없다.

이렇게 공개되면서 제도적인 것은 알면서도, 은밀한 것은 모르는 무지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보이게 되는 첫걸음이다. 대기업 과정의 연봉이 몇 천원이라는 것은 자기의 미래이면서, 일용노동자의 생활이나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은 남들 이야기이다. 국사 교과서를 달달 외어 왕조사

관을 머리 속에 뿌리 박아 있으면서도, 조선통사나 한국통사 같은 책을 읽는 것은 위험한 거거리 여행이다.

한편으로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이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라는 제도에, 가정에서는 텔레비전에 갇혀 시민의 무관심을 낳고 있다. 이젠 교과서와 텔레비전을 벗어난 때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반 교과서, 반 텔레비전을 외치면서 동용문을 들어서는기를 바란다.

반 교과서, 반 텔레비전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현상만을 바라보기 쉬운 신인상들이 새로운 시대를 갖는 것이라 새로운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자기 주제를 확고히 세우기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다. 부패의 힘을 배후라는 우리의 예견이다.

기존의 무관심 무정형한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를 찾기 위한 시도는 자기 스스로 미처 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1년 내내 책과 사상을 찾는 일도 좋은 시도이고 우리 문화를 찾고 남과 북의 합점을 위한 노력도 인생의 밑바탕이 된다고 본다. 또한 소신과 사상은 인간관계의 발전을 위해 친구나 진실한 이성을 찾는 일도 바람직하다.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습을 찾는 것이 소중할 일이다. 자기 스스로 비참하기 위한 열정이 풍부한 모습들이다.

이러한 자기의 작은 행위는 신념들의 이러한 말에 뒷받침을 대할 수 있다. "공정 시킨다나 방과 후에 뛰냐?" 라는 레나 토마다라 갈까?"

학 속

'95학년도 대학 입학 평가제를 볼 앞에 둔 시점에서 부총장이리는 중점을 받게 되어 핵심이 되었다. 지난 3월 부총장실에서 만난 조영원 부총장은 직경부터 말하느라 말문을 열었다. 조영원 부총장은 수원캠퍼스 기획관리실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연말 인사 이동을 부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다음은 조 부총장의 지휘와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부총장은 실무부서장이 아니다. 부총장실에서 국제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각 실무부서의 이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한재 우리 학교가 동맹경화중에 걸려 있다는 비변의 소리가 있다. 동맹경화중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의식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의 재정지원보다 구성원들의 의식전환이 우선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의식전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기 싫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의식전환이다. 쉬운 일, 편한 일만 해서 그 순간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이다.

—학교가 여러가지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나 진척되고 있으며, 최종안은 언제 볼 수 있나.

▲3, 4월말에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기획도 예산의 뒷받침, 세부시행계획, 시행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것들을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면,

확실히 계획이다. —우리나라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에 빠져 있다. 그러나 개념이 모호할 뿐더러 역풍을 수도하는 정부와 국제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로판이라는 느낌이다. 정치학 교수로서 생각하는 국제화는 무엇인가.

▲국제화의 수준이란 국제적경쟁력의 수준이다. 예를 든다면 외국대학이 밀려오더라도 오히려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대학이 국제화를 이룩한 대학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의 국제화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대학이 들어올 수 있다면 역으로 우리 대학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수동적인 방자자에서 탈피, 우리도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한의학, 한국학은 좋은 상품이라 생각한다. 아직 국제화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공간 부속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공간 부속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동맹경화 타개위해 의식 전환 필요

한의학·한국학으로 개방화 이겨낼 터

북지회관은 언제 완공되나.

▲방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건물은 자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간문제는 서도 양보하고 지체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북지회관은 일기가 순조롭다면 7월하순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본다.

—학내 주차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

이 아니다. 학교의 대응은 임시방편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주차 방법 전입을 추진중이다. 3월말에 착공할 것이다.

—죽음은 어떻게 보나.

▲월 3일 시무시 이후 공영원 총장님 이하 전 실무부서장들이 정간 미사비에 임했다. 특히 나쁜 서울 근교의 산에 오른다. 북한산, 도봉산은

눈감아도 된다.

—부총장으로서 경희 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5년의 시간은 우리 대학이 제도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학교의 모든 일에 적극적인 참여로 힘을 모아라 한다. '학원 안경이 절실하다. 불필요한 소리가 없어진다.

(김종석 기자)

양캠 부총장 인터뷰



수원 : 조창환 부총장

학교 발전 위해선 서로 도와야 할 때

부총장의 책무는 학내 연구풍토 지원하는 것

"발령후 지난 두달동안 부총장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직책을 수락하였지만 현재는 인식의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인 조창환 수원캠퍼스 부총장의 옥색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부총장이란 직은 절대 학자의 길은 아니므로 연구에 전념할 수 없음을 무척 안타까워 하는 조 부총장은

"학생이 권한을 공부할 수 있고 교수가 열심히 연구할 수 있고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총장의 책무입니다."라고 실무 부총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대학개방을 추진해 온 한재 우리학교 조 부총장의 기록에서 있었다. 말하는 조 부총장은 "앞으로 대학 지원자수는 전적으로 줄어들고 외국교육기관들의 국내 진출로 인해 대학간의 경쟁은 가속화되는 현재 시점에서 우

에서 모두 우수한 학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학평가를 대비, 나름대로 그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행정부서가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준비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2년이 결코 길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재 수원캠퍼스는 교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앞으로 발전계획에 따라 차차로 풀어 나갈 것이라는 조 부

총장은 이중 교통문제에 관해 "현재 경화에 입점 대학의 책임자들과 함께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반영되어 그 시행에 거의 확실시 된다고 수원캠퍼스 교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전망하기도 한다.

또한 이중경화학과가 많은 비공인 차지라는 수원캠퍼스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을 위한 제도의 구상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교수, 학생, 직원들 학내 구성원에 한정된 경희가 아닌 졸업생과 그 지적사회인 모두의 대학이 되기 위해 이에 앞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현재 산학협동 대학원 같은 제도를 강화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 정화하고 엄격하기로 소문이 날정도로 매사에 신중하고 부총장은 "대학의 주인은 소속된 모든 사람입니다. 교수 학생 직원 3주체가 이기주의에 빠져 불이익을 입는 자를 위한 제도를 살펴 학교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도와야 할 시기입니다. 경희가 세계적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바로 지금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당부한다.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에 이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마련해야 한다는 신인 부총장의 의지에 다시 태어난 학교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박경희 기자)

개혁의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것

— 5개년발전계획안을 검토하며

끝내는 내년에 있을 대학총합평가인정제, 길게는 97년 교육개혁의 5개년 발전 계획안이 마련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총학생회, 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학내 재 구성원들의 여론수렴에 들어간 이번 5개년 계획안은 1부 학내 총으로 확정되어 9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학교 당국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현실안주의 자세가 아닌 과감한 수종의 칼자루를 들었기때문에 모든 경희인들은 경희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그 경희의 박수 속에는 우리의 목소리 또한 함께 있을을 학교당국과 재단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는 이미 지난 88년, 2천년까지 12년동안 시행한 '장기차 발전계획(안)'을 3년여의 연구 끝에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것으로 국내 유수대학간의 학제교류, 교수 안식년제(연구연차), 석좌교수제, 교내 건강상 설치, 교원을 위한 인사사내 제금 등의 내용을 담은 그 발전안은 그러나 그 이후 90년을 넘어오면서 대학의 중심인 수원캠퍼스 도서관의 확충 목표도 계속 늦춰져 이

제 95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시행에 많은 차질을 빚어 학내 모든 이들의 기억에서 멀어졌으며, 대외적으로는 학교의 수준이 더욱 떨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어야하는 자를 안아야 했다.

구대미 이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번 발전계획안은 88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88년에 비해 이번 발전안이 가용성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달리진 학교의 학생회, 노조의 모습이다.

이전에는 발표하기를 꺼렸던 학교의 재단의 예산서 공개와 운영위원회 등 회의에 대한 공개, 정직원인 단계에서의 여론수렴등을 약속한 것은 학교당국이 계획안과 발전에 대해 갖고 있는 자신감의 반영이라 학생회측이 대학총합평가인정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학교당국과 최대한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다짐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더불어 '변화하는 직원이 대학개혁의 시작'이라는 노동조합의 현수막도 앞날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더불어 '교육의 인격화'를 실현하는 경희대학교의 미래를 위한 '경희인' 여러분의 열한 발전유에 대학주보는 항상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신인상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넥타이를 풀어라!

고정관념의 옷을 벗고 자유로운 사고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회사, 현대자동차

2000년대 미래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의,
바뀌지는 않, 키트같은 무인자, 낡은 차를
개발하는 등 변별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학시절 합리주의자로 자부하던 나는, 과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잘못임을
깨달았다. "만도 안돼, 실현가능성이 없잖아?"
이런 말들은 나의 고정관념이었음을,
그리고, 이처럼 넥타이를 풀듯
자유로운 발상의 소유자들이 바로
엘리트다. 스나타 등을 개발한 주역이었음을!

앞선 사고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계 발아들이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